제6강 개념의 분석론 II

◆개념의 분석론과 판단의 유형
(1교시)
※학습목표: 개념의 분석론의 위치와 그에 따른 판단의 의미와 유형을 살핀다.

▲개념과 직관의 관계
「모든 직관은 감성적인 것으로서 촉발에 의존하지만, 개념은 기능에 의해서 생긴다. 나는 〔기능〕을 서로 다른 표상(역주)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표상 아래 귀착시키는 통일작용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개념은 사고의 자발성에 기본한다. 이것은 감성적인 직관이 인상의 수용성에 기본하는 것과 같다.」
「(역주부분)내가 개라는 말을 쓸 때에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개의 특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그 말 속에 개의 일반적인 특성이 포괄되어 있다. 이것은 개념작용conception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게 된다.」
-직관immediate은 개념이 매개되지 않은 인식이다.
-개념은 사고의 자발성에 기초하며, 직관작용으로 주어진 인식질료를 이용하여 주어진다.

*참고사항
독일 관념론을 관류하는 개념: 명시적인 것-주체, 자유, 이성 등.
명시적이지 않은 것-매개적, 무매개적.

▲오성의 역할(판단)과 선험적 논리학
「그런데 오성은 개념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중략)… 판단은 대상의 매개적인 인식이요, 따라서 대상에 관한 「표상〔직관〕의 표상」〔개념〕이다.」
-S is P는 S와 P를 종합하는 것이다. 즉 이는 판단이며, 주어와 술어를 종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종합이 잘되면 진실이고 잘못되면 거짓이 된다.
-일반논리학: 순수한 추론형식만을 다룬다.
-선험적 논리학: 대상을 인식하는 한에서, 직관을 전제하는 한에서 작동하는 오성의 틀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판단의 논리적 틀을 연구하는 것이다.
-'표상의 표상'이라고 할 때, 앞의 표상은 직관이고, 뒤의 표상은 판단이다.

▲개념의 분석론의 의미
-개념의 분석론에서의 개념은 범주category다. 그래서 개념의 분석론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 오성에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범주론이다.
-하나하나의 개념이 아닌, 그런 경험들에 관련하여 오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틀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한에서 개념은 결국 범주다. 그러므로 정확히 하면 개념이 아니라, 오성이 개념들을 사용하는 전체틀(범주)이라 하겠다.
*참고사항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비교

www.artnstudy.com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범주론	개념의 분석론
명제론	판단론
분석론	원칙의 분석론
소피스트논박	변증론

▲판단의 유형

「 **판단들의**

1.분량 2.성질 3.관계 4.양상

전칭판단 긍정판단 정언판단 개연판단

특칭판단 부정판단 가언판단 실연판단

단칭판단 무한판단 선언판단 필연판단」

-사실 이러한 구분은 원래 논리학을 칸트가 자기 목적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판단의 불량

-판단의 양은 S is P라고 할 때, S의 양을 말한다. 그래서

전칭: 모든~

특칭: 어떤~

단칭: 그~

이 분량부분은 과연 개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참고사항

일반적general과 보편적universal: 일반적이란 말은 '대부분이 ~다.'란 뜻이다. 그에 반해서 보편적이란 것은 '모든 것이 ~다.'이다.

칸트의 텍스트를 읽는 방향: 칸트의 사고는 중세적인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순수이성비판도 근대과학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시간 속에서 경험하며 주체가 매몰되지 않고 종합되는 주체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www.artnstudy.com

◆판단의 유형과 범주
(2교시)
※학습목표: 판단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범주를 살펴본다.

▲판단의 유형
「 **판단들의**

1.분량	**2.성질**	**3.관계**	**4.양상**
전칭판단	**긍정판단**	**정언판단**	**개연판단**
특칭판단	**부정판단**	**가언판단**	**실연판단**
단칭판단	**무한판단**	**선언판단**	**필연판단**」

▲판단의 질
-긍정판단: ~이다.
부정판단: ~이 아니다.
무한판단: ~는 아니다.
-무한판단의 무한은 잠정적virtual 무한이다. 즉 무한정indefinite이다.

▲판단의 관계
-정언판단: A가 B에 종속되는 것
가언판단: A이면 B다.
선언판단: A이거나 B다.
-관계는 언제나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만 형성된다.

▲양상
-양상은 판단의 판단이다. 즉 일상언어의 조동사에 해당한다.
-개연판단: ~할 수 있다. can(possibility)
실연판단: ~은 실제다. actual(actuality)
필연판단: ~여야만 한다. must(inevitability)

▲범주표
「 **범주표**

1.분량-단일성	**2.성질-실재성**
다수성	**부정성**
전체성	**제한성**
3.관계-속성과 자존(실체와 우유성)	**4.양상-가능성-불가능성**
인과성과 의존성(원인과 결과)	**현존성-비존재성**
상호성(작용자와 수동자 간의 상호작용)	**필연성-우연성** 」

-전칭명제가 단일성이고 단칭명제가 전체성이다. 이유는 전칭명제는 여러 개를 하나로 보는 것이고, 단칭명제는 한 존재를 전체로 보기 때문이다.
-긍정명제는 실재성, 부정명제는 부정성, 무한판단은 제한성과 연관된다.
-정언판단(명제)은 하나가 다른 것에 복속되는 것이다. 즉 S is P일 때, S가 실체고 이에

www.artnstudy.com

속성 P가 복속되는 것이다. 가언명제는 범주로 말하면 원인과 결과, 선언명제는 상호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호성은 A가 능동이면 B가 수동, B가 수동이라면 A가 능동이란 의미에서의 상호성이다.

*참고사항
 -현존성da Sein과 비존재성nicht Sein. 이는 실존에 관한 문제다. exist란 말은 ~이 실존한다는 뜻이다. 하이데거의 경우 현존재da Sein란 용어로 실존을 말했다.

www.artnstudy.com